

러시아 아무르주 농업 현황*

강 명 구
(산업은행 조사분석부 연구위원)

1. 러시아 아무르주 농업의 연왕

1.1. 농업지대

아무르주 면적은 3,619만 ha로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83개의 연방주체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주(州) 중 하나로, 남부, 중부, 북부, 북부 타이가,¹⁾ 북부산악지대 등 5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농경지는 7.5%인 273만 ha이며, 84.5%인 3,057 ha는 산림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 생산을 위한 아무르주 기상상황은 좋은 편으로 온난하고 따뜻한 기간이 길고 무상일수가 길며 작물 생육 기간 중에 강우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일조가 풍부하다. 아무르주 주요 생산물인 콩과 곡물 등의 작물 재배기간인 5월에서 10월 사이의 강수량은 남부지대와 중부지대가 350~470mm로 작물 재배에 적당하다. 작물 생육기간 중의 평균기온은 남부지역이 15.5℃이고, 중부지역은 14.4℃이며, 북부지역은 13.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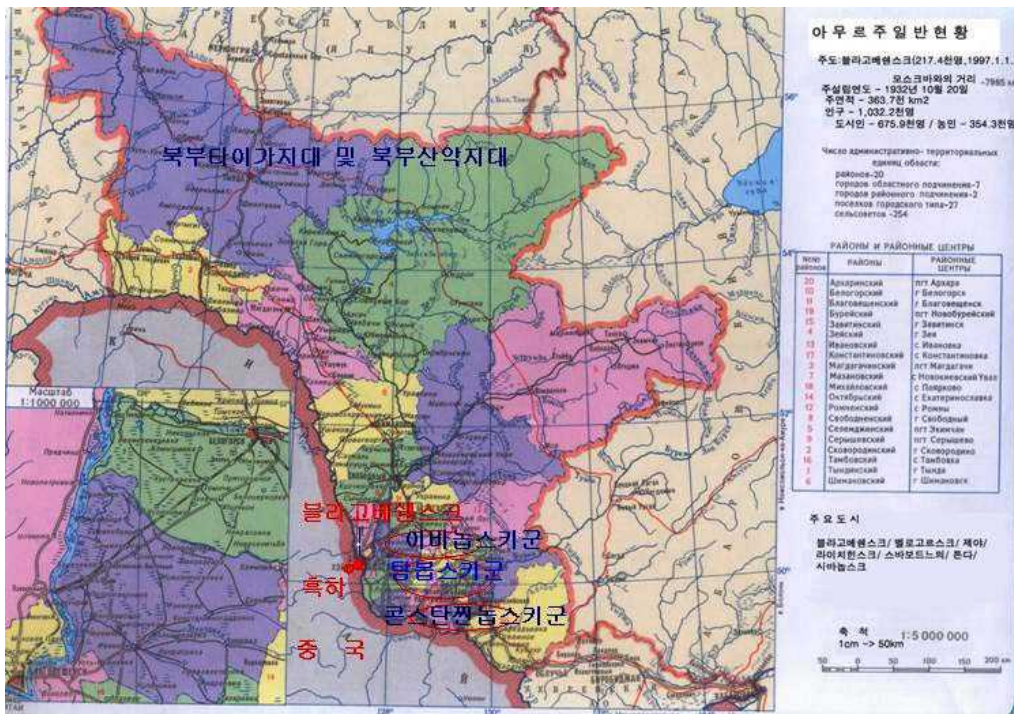
* (mgk101@kdb.co.kr).

1) 타이가(Taiga): 북부 유럽, 캐나다, 알래스카 등지의 아한대(亞寒帶)의 침엽수를 주체로 한 삼림 지대. 빙하 작용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산지를 제외하면 거의가 습지로 되어 있다. 부식되지 않은 산성의 포드졸(podsol) 토양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 밑은 툰드라 지대와 마찬가지로 영구 동토층(永久凍土層)으로 되어 있다. 타이가는 삼림 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석탄, 석유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그 개발이 크게 기대되고 있음.

콩과 곡물 등 작물생육에 영향을 주는 10℃ 이상의 적산온도는 남부지역은 2,100~2,300℃, 중부지역은 1,900~2,100℃, 북부지역은 1,700~1,900℃이다. 무상일수도 남부지역은 127~139일로 가장 길며, 중부지역은 111~113일, 북부지역은 92~101일 짧다.

이러한 기후 상황을 살펴볼 때, 이들 5개 지역 중에서 남부와 중부 지역이 작물의 생육 및 안정적인 생육이 가능한 농업지대이다. 아무르주의 남부 및 중부지대는 대부분 제야강과 아무르강 주류와 합류되는 흑토지대로 아무르주 최대의 곡창지대로 탐보프스키군, 콘스탄찐놉스키군, 이바놉스키군이 여기에 속한다.

그림 1 아무르주 농업지대



자료: 자체 보유자료

1.2. 파종면적 및 농기계 연왕

1.2.1. 농산물 파종면적

아무르주는 구소연방 붕괴 이후 러시아연방 정부의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축소되면서 농산물 총 파종 면적은 2000년 655,200 ha에서 2005년 576,400 ha로 감소하였다. 이후 러시아연방 정부와 아무르 주정부의 농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고정투자

증가로 파종 면적은 2008년 726,000 ha에서 2012년 1,001,000 ha로 늘어났다. 아무르주의 농작물은 곡물, 콩, 감자·채소·과채류, 사료작물로 구분된다. 2012년 작물별 파종 면적을 살펴보면, 아무르주 최대 생산물인 콩이 682,400 ha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였다. 콩의 파종 면적은 2008년 358,900 ha로 총 파종 면적의 49.6%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 68.2%로 확대되었다. 2012년 아무르주의 콩 파종 면적은 러시아의 전체 콩 파종 면적 1,481,000ha의 46.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넓은 파종 면적을 차지하는 작물은 봄밀로 2012년 10.9%를 차지하고 있다. 아무르주는 겨울이 매우 추워서 가을 밀 파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무르주의 최근 4개년(2009~2012년) 연평균 총 파종면적 증가율은 8.4%이며, 콩의 연평균 파종면적 증가율은 17.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봄밀의 연평균 파종면적은 6.5% 감소하였다.

표 1 농작물 파종 면적

단위: 천 ha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파종 면적	726	761.5	790.3	855.4	1,001.3
곡물	258.1	247.5	204	189.3	222.8
가을 파종 곡물	1.2	0.5	0.1	0.1	0.1
호밀	1.2	0.5	0.1	0.1	0.1
봄 파종 곡물	256.9	247	203.9	189.2	222.7
밀	143	138	108	100	109.4
보리	54.5	51.5	44.5	38	46.7
귀리	45.5	42.4	37.5	30.8	34.5
메밀	12.5	12.4	11.3	14.2	16.5
공예농산물	358.9	401.9	484.1	563.7	682.4
해바라기	0	0	0	0	0
콩	359.8	401.6	484.1	563.5	682.4
감자, 채소, 과채류	25.2	25.5	25.6	26.1	25.8
감자	20.4	20.9	20.9	21.5	21.2
채소(노지)	4.4	4.4	4.4	4.4	4.3
사료용	82.9	86.7	76.6	76.3	70.4
다년생 풀	58.2	57.7	54	48.9	47.5
일년생 풀	16.9	18	12	14.4	13.2
사일로용 작물(옥수수 제외)	-	0.1	-	-	-
사료용 옥수수(사일로형)	4.4	6.9	6	6.1	6.7
사료용 과채류(호박 등)	1.0	1.0	1.0	1.0	0.0
휴경지	25	26.3	45.6	49	45.2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 아무르주 주통계청, 2012.

1.2.2. 농기계 연왕

아무르주의 농기계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2년 가장 심한 감소율을 나타낸 농기계는 쟁기 18.7%, 경운기 12.6%, 트랙터 8.8% 이다. 최근 4개년 농기계들의 연평균 증감률은 트랙터 9.1%, 씨레 14.9%, 파종기 10.2%, 곡물수확용 콤바인이 4.9% 감소하였다. 농기계의 감소는 파종 및 수확기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생산량 감소를 가져오기도 한다.

아무르주 농기계 감소 원인은 세 가지이다. 첫째, 구소연방 붕괴 이후 러시아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농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여 노후화된 농기계를 100% 대체하지 못하였다. 둘째, 민영화로 농기계의 지속적인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콜호즈와 샵호즈의 민영화시 농기계에 대한 민영화 미비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더 이상 농기계 구입에 대한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극동지역의 유일의 농기계공장의 부도이다. 유대인 자치주에 있던 극동지역 유일의 농기계공장이 자금상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농장들은 시베리아 또는 서부지역에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어 농기계 구입을 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농장에서는 농기계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이미 고장 난 농기계에서 부품을 조달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가 반복되면서 농기계의 수는 감소하게 되었다.

표 2 농기계 현황

단위: 대,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1년 대비 증감률
트랙터	3,653	2,914	2,930	2,735	2,495	-8.8
쟁기	1,097	850	742	670	545	-18.7
씨레	9,026	6,424	6,159	5,279	4,728	-10.4
경운기	1,196	996	836	772	675	-12.6
파종기	1,110	975	893	765	687	-10.2
제초기(풀 베는 기계)	399	295	305	269	253	-5.9
트랙터 레이크	180	142	136	134	127	-5.2
수확기 (떨어진 이삭을 수확)	302	232	236	207	190	-8.2
건초 포장기	400	360	365	325	322	-0.9
곡물 수확용 콤바인	1,394	1,233	1,299	1,231	1,142	-7.2
옥수수 수확용 콤바인	6	7	5	6	6	0
사료 수확용 콤바인	94	76	77	66	63	-4.5
감자 수확용 콤바인	18	14	10	10	11	10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 아무르주 주통계청, 2012.

1.3. 아무르주 농산물 생산

1.3.1. 농산물 생산

아무르주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은 콩, 밀, 감자 등이며, 중국의 흑룡강성과 아무르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 벼농사도 가능한 지역이다.²⁾ 2010년 러시아는 이상기온에 따른 극심한 가뭄으로 농산물 생산량, 특히 밀의 생산량이 급감하였다.³⁾ 2010년 러시아의 밀 생산량은 2009년 9,710만 톤에 비해 37.2%로 감소한 6,100만 톤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이상 기온에 따른 곡물 생산량 감소로 러시아는 2010년 밀 등 곡물의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아무르주의 최대 생산 농산물은 콩으로 2012년 러시아 총 콩 생산량의 43.1%인 777,600 톤을 생산하였다. 러시아연방 콩 생산량 대비 아무르주의 비중은 2005년 56.1%에서 2012년 43.1%로 감소하였다. 아무르주의 콩 생산은 가뭄의 영향을 받지 최근 4개년 연평균 24.5%씩 증가하였다.

표 3 농산물 생산량

단위 : 천 톤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곡물	272.8	337.8	130.4	338.2	271.3
밀	165.5	206.8	76.7	190.9	143.7
보리	54.5	70.4	28.8	74.6	51.8
호밀	0.6	0.4	0.0	0.0	0.1
귀리	40.3	54.3	16.3	47.1	36.4
메밀	7.4	3.1	3.8	9.9	12.6
기타 두곡류(콩과 식물)	0.0	0.1	0.0	0.0	0.0
옥수수	4.5	2.7	4.8	15.6	26.8
해바라기씨	0.0	0.0	0.0	0.0	0.0
콩	323.8 (43.3)	435.6 (46.1)	569.9 (46.6)	826.8 (47.1)	777.6 (43.1)
감자	364.8	304.7	303.9	295.8	296
채소류	67.3	59.2	58.9	60.8	69.3

주: ()는 러시아연방 콩생산량 대비 아무르주 콩 생산량 비중.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 아무르주 주통계청, 2012.

2) 러시아 아무르주와 중국 흑룡강성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강을 러시아는 아무르강, 중국은 흑룡강이라 부름.

3) 러시아연방은 2007년 곡물생산량 감소로 2008년, 2010년 주요 밀 생산지에 심각한 가뭄으로 곡물생산량이 감소하자 2010년 하반기 등 200년대 들어 총 2번의 곡물수출금지조치를 취하였음.

아무르주는 2010년, 2012년 생육기간인 극심한 가뭄과 폭염 피해로 농작물의 단위ha당 생산성이 급감하였다. 2010년 5월 가뭄으로 곡물의 평균 단위 ha당 생산성은 2009년 1.4톤에서 0.9톤으로 35.7% 감소하였다. 2012년 곡물의 평균 단위 ha당 생산성은 1.26톤으로 2011년 1.8톤에 비해 30% 감소하였다. 이러한 가뭄 피해에 따른 생산성 감소는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고 주식인 빵에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식생활을 어렵게 하였다. 반면, 주요 농산물인 콩은 2010년의 기후변화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2012년에는 가뭄의 영향으로 생산성이 14.5%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위 ha당 생산성은 기후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농에 투입되는 농자재 부족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단위 ha당 농산물 생산성

단위 : 100kg/1ha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곡물	10.8	14.0	9.0	18.0	12.6
밀	11.7	15.1	9.6	19.1	13.3
호밀	4.7	7.5	2.7	3.1	4.9
보리	10.2	13.8	8.7	19.7	11.2
귀리	9.1	13.1	7.0	15.4	11.0
메밀	6.0	3.1	5.1	7.1	7.7
콩	8.6	10.5	12.6	13.8	11.8
감자	179.0	148.0	147.0	138.0	142.0
채소(노지)	157.0	130.0	135.0	137.0	163.0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 아무르주 주통계청, 2012.

1.3.2. 농산물 생산액

2012년 아무르주의 농업 생산액은 2,821천만 루블이다.⁴⁾ 농업 생산액 중에서 농산물이 64.8%인 182.3억 루블, 축산물이 35.2%인 997천만 루블이다. 아무르주의 농업 생산액 중에서 농산물의 비중은 2008년 58.2%에서 2012년 64.8%로 증가하였으나, 축산물의 비중은 2008년 41.8%에서 2012년 35.2%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축산물의 생산액 비중이 감소한 것은 사료용 작물 파종면적 감소와 사료가격의 상승으로부터 기인한다.

2012년 영농주체별 농업 생산액은 농기업이 40.5%, 개인농이 45.2%, 그리고 가족농이 14.4%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농의 농업 생산액이 높은 것은 다차(dacha)⁵⁾를 통한 감

4) 2012년 12월 31일 러시아 중앙은행의 환율은 1US\$당 30.37루블.

5) 다차(dacha): 러시아의 시골 저택.

자, 채소류 등의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개인농은 감자의 88.6%, 채소류의 87.7%를 생산하였다. 농기업은 곡물 74.6%, 달걀 74.9%, 육류의 55.3%를 생산하였다. 이처럼 농업생산물의 비중이 영농주체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표 5 영농 형태별 농업 생산액

단위 : 백만 루블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영농 형태	합 계	15,201.1	20,644.7	21,229.7	28,415.1	28,294.2
	농산물	8,841.6	12,956.5	13,041.4	18,709.6	18,328.8
	축산물	6,359.5	7,688.2	8,188.3	9,705.5	9,965.4
농기업	합 계	6,374.3	8,130.6	8,673.6	12,661.9	11,446.9
	농산물	3,865.7	5,101.2	5,360.4	8,890.5	7,888.9
	축산물	2,508.6	3,029.4	3,313.2	3,771.4	3,558
개인농	합 계	7,076.9	10,077.9	10,419.9	11,828.4	12,786.5
	농산물	3,499.1	5,772.8	5,772.8	6,295.6	6,828.8
	축산물	3,577.8	4,305.1	4,550.7	5,532.8	5,957.7
가족농(협업농)	합 계	1,749.9	2,436.2	2,136.2	3,924.8	4,060.8
	농산물	1,476.8	2,082.5	1,811.8	3,523.5	3,611.1
	축산물	273.1	353.7	324.4	401.3	449.7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 아무르주 주통계청,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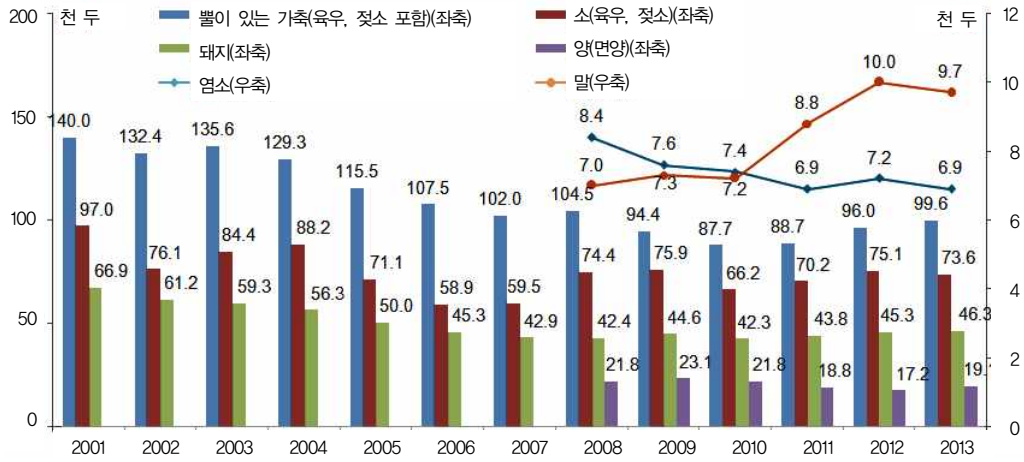
1.4. 아무르주 축산업 동향 및 축산물 생산

1.4.1. 축산업 동향

아무르주의 축산업은 농업 붕괴와 함께 침체되었다. 구소연방의 콜호즈(집단농장), 샵호즈(국영농장)는 영농과 더불어 농업가축 사육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아무르주 축산업은 농장의 민영화 과정에서 농장운영이 붕괴되어 축산사료 재배 감소로 침체되었다. 2013년 1월 1일 아무르주의 농업가축 사육 두수는 181만 마리로 2001년에 비해 23.1% 감소하였다. 이후 농산물 생산 증가와 사료용 건조재배 증가로 가축사육 비용이 감소하여 농업가축 사육 두수는 증가하였다.

영농주체별 농업가축 사육 두수는 기업농 형태의 대량사육을 필요로 하는 닭 이외의 농업가축은 개인농이 60%이상을 사육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영농 주체별 농업가축 사육 두수는 소는 농기업 14.3천두, 개인농 28.6천두, 가족농 3.4천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돼지는 농기업 22.7천두, 개인농 45.5천두, 가족농 5.4천두를 사육하고 있

그림 2 가축 사육 두수



주: 각 연도 별 자료는 1월 1일 기준.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 아무르주 주통계청.

다. 닭 사육은 특성상 농기업이 아무르주 전체 사육두수 2,371천두 중 83.9%인 1,989천두를 사육하고 있다. 또한, 아무르주의 지역적인 특성상 북부산악 및 북부툰드라지역에는 순록을 사육을 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 아무르주는 6.8천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75%인 5.1천두를 농기업이 사육하고 있다.

그림 3 영농 형태별 가축사육 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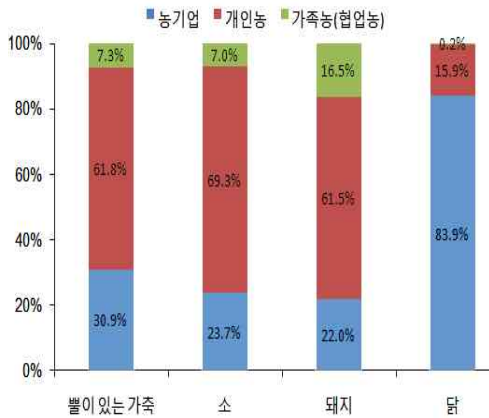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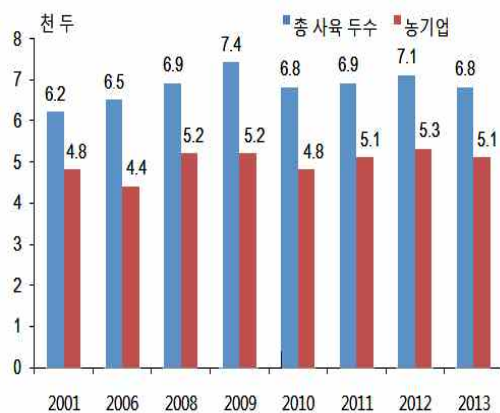


그림 4 순록 사육 현황



주: 1) 각 연도 별 자료는 1월 1일 기준.
 2) 그림 2의 황소가 있는 가축은 육우, 젖소 포함.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 아무르주 주통계청.

1.4.2. 축산물 생산 및 수급

아무르주는 남부 및 중부지역에서 농업가축을 사육하며, 북부타이가지역에서 순록을 사육하고 있다. 구소연방시절 콜호즈 및 샵호즈 내에서는 반드시 농업가축을 동시에 사육하게 하였다. 이는 곡물생산에서 발생하는 사료용 처리와 동시에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농업가축 사육이 의무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농업가축 사육을 위해 사료용지를 농경지 포함시켜 경작하도록 하였다.

아무르주의 축산물 생산량은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2012년 육류 생산량은 30.2천 톤으로 2011년에 비해 14% 감소하였으며, 우유 2.8%, 달걀은 6.2% 감소하였다.

그림 5 아무르주 축산물 생산



자료: 아무르주 주통계청, 2012

아무르주의 축산물 생산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육류, 우유, 유제품, 달걀 등을 대부분 축산물에 대하여 해외 또는 다른 연방주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2011년 아무르주는 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생산량 감소로 수입량은 201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육류 및 가공품(소시지 등 육류 가공품)의 수입량은 7.3%, 달걀은 3%, 우유 및 유제품은 27% 증가하였다. 특히, 러시아 국민들의 식생활의 특징상 달걀을 많이 소비하는데 아무르주도 246백만 개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76.4천개를 수입하였다.⁶⁾

6) 2012년 아무르주 주민 1인당 연간 301개의 달걀을 소비.

표 6 아무르주 축산물 수입 현황⁷⁾

단위: 천 톤

구 분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육류, 그 가공품	14.0	19.6	24.0	20.0	20.5	22.0
달걀, 천개	21.9	47.2	43.0	90.8	74.2	76.4
우유 및 유제품	2.5	29.7	30.9	18.5	20.4	25.9

자료: 아무르주 주통계청, 2012.

2. 아무르주 농업 생산물 교역 및 외국인투자

2.1. 농업 생산물 교역

2.1.1. 농산물 교역

아무르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수출보다 대부분 러시아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아무르주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에서 수출되고 있는 작물은 콩이 대표적이다. 이외의 농산물은 소량으로 중국 또는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콩의 수출도 2011년까지는 1천 톤 미만으로 매우 작은 양이었지만 2012년 71.3천 톤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아무르주의 농산물 수입 품목은 채소류와 과일 및 견과류이다. 채소류는 여름 보다는 겨울에 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시설재배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낮은 기온으로 시설재배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채소는 주로 중국에

표 7 아무르주의 농산물 교역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루블

수 출 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수출	콩	-	0.7	1.3	71.3
		-	(0.2)	(0.3)	(17.9)
수입	채소	29.9 (12.0)	28.5 (7.0)	23.5 (13.8)	20.4 (13.6)
	감자	5.3 (2.3)	4.3 (1.1)	4.7 (2.3)	5.0 (2.5)
	과일, 견과류	23.7 (14.9)	18.4 (8.3)	13.1 (10.2)	14.7 (11.3)

주: ()는 수출액.

자료: 아무르주 주통계청, 러시아연방 통계청, 2012.

7) 해외수입 + 다른 러시아연방주체로부터 도입.

서 수입되고 있다. 과일과 견과류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은 주도(州都)인 블라고베첸스크와 마주보는 중국의 흑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는 주로 박과채소인 멜론(덩이), 포도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2.1.2. 축산물 교역

아무르주의 축산물 생산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육류, 우유, 유제품, 달걀 등을 모든 축산물에 대하여 해외 또는 다른 연방주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2011년 아무르주는 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생산량 감소로 수입량은 2010년에 비해 증가 증가하였다. 육류 및 가공품(소시지 등 육류 가공품)의 수입량은 7.3%, 달걀은 3%, 우유 및 유제품은 27% 증가하였다. 특히, 러시아 국민들의 식생활의 특징은 달걀을 많이 소비하는데 아무르주도 246백만 개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연간 301개의 달걀을 소비해 연간 76.4천개를 수입하고 있다.

표 8 아무르주 축산물 수입 현황⁸⁾

단위: 천 톤

구 분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육류, 그 가공품	14.0	19.6	24.0	20.0	20.5	22.0
달걀, 천개	21.9	47.2	43.0	90.8	74.2	76.4
우유 및 유제품	2.5	29.7	30.9	18.5	20.4	25.9

자료: 아무르주 주통계청, 2012.

2.2.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2.2.1.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

아무르주 정부는 붕괴된 농업을 되살리기 위해 2000년대 들어 고정자본에 대해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의 주요 방법으로는 주정부의 직접적인 투자와 은행으로부터 영농주체에 대한 대출시 주정부의 보증 정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주정부의 직접적인 고정자본투자는 2008년 9.8억 루블에서 2012년 26.6억 루블로 최근 5개년 간 연평균 30%씩 증가하였다. 이는 아무르주 전체 고정자본에 대한 연평균 투자 증가율 10.5% 보다 3배 이상 높은 증가세이다.

8) 해외수입 + 다른 러시아연방주체로부터 도입.

아무르주 정부의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는 교통, 통신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인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력과 가스 생산 및 공급부문에 대한 투자가 26.4%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9 농업부문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루블,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고정투자	66,055.5	65,625.3	83,892.1	118,296.5	98,558.4
농업부문	1,056.9 (1.6)	984.4 (1.5)	1,174.5 (1.4)	2,129.3 (1.8)	2,661.1 (2.7)

주: ()는 총 고정투자 대비 농업부문 고정투자 비율
 자료: 아무르주 주통계청, 러시아연방 통계청

2012년 아무르주 금융기관의 산업부문에 대한 대출은 403.7억 루블로 2011년 462.4억 루블에 비해 12.7% 감소하였다. 농업부문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대출도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 약 10배가량 증가하였으나, 2012년 농업부문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대출은 2011년에 비해 19.1% 감소하였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농업부문에 대한 대출 감소는 영농주체들의 자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⁹⁾

표 10 농업부문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현황(중·대 농기업)

단위: 백만 루블

구 분	기 간	2010	2011	2012
총 대출	합계	46,343.3	46,243.2	40,373.6
	단기	17,801.4	23,279.8	9,540.0
	장기	28,541.9	22,963.4	30,833.6
농업부문	합계	1,094.9	12,543.3	10,152.0
	단기	2,837.1	11,089.7	3,810.7
	장기	1,041.2	1,453.6	6,341.3

자료: 아무르주 주통계청, 러시아연방 통계청, 2012.

2.2.2. 외국인직접투자

2012년 아무르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약 6억 달러로 2011년에 비해 19.2% 증가하

9)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영농주체들, 특히 대규모 콩 재배농장 및 들은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영농전에 이르쿠츠크에 있는 식용유 공장에 자금을 받아 수확 후 현물로 되갚는 방식으로 농장을 운영하여 항상 자금부족에 따른 농장 부도 상황까지 갔었음. 또한 농장의 기금류를 사육하기 위해 대두박을 식용유 공장으로부터 비싼 값에 사와야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음.

였다. 아무르주 최대 외국인투자 부문은 광물자원개발 분야로 총투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부동산부문으로 27.7%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농업부문 외국인투자는 704천 달러로 아무르주 총투자의 0.1%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적은 투자이다. 아무르주 정부는 1991년 구소연방 해체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감소로 붕괴된 농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였으나, 2011년 1,536천 달러를 투자한 것이 최대이다. 외국인의 아무르주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농산물가공 분야보다 농산물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이다.

표 11 농업부문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0	2010	2011	2012
아무르주 FDI	4,527.7	380,123.9	482,954.4	597,172.7
농업부문 FDI	11.7 (0.3)	1,418.0 (0.4)	1,536.2 (0.3)	704.6 (0.1)

주: ()는 총 FDI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아무르주 주통계청, 2012.

그림 6 북한의 친선농장 및 영농인 숙소 전경



자료: 저자 직접 촬영.

아무르주 농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국가들 중에는 한국과 북한이 있다. 한국의 아무르주에 대한 농업투자는 (주)고합이 처음으로 투자하였다. (주)고합은 탐뵉프스키 군에 6,500ha 규모의 코러스(Ko-Rus)-1 농장을 현지 군정부와 50:50으로 투자하여 밀, 옥수수, 콩을 농사지었다. 그러나 초기 투자에 따른 농장관리 미숙과 2000년대 중반 고합본사의 경영상황 어려움으로 철수하였다. 북한은 탐뵉스키군 타찌아노프카에 친선농장을 하여 콩과 채소류를 재배하였다.

3. 아무르주 농업의 중요성

3.1. 높은 생산 잠재력

아무르주의 실제 파종면적은 농경지의 36.6%로 농기계, 비료, 농약 등이 정상적으로 공급된다면 파종면적 증가와 생산량이 급증할 것이다. 2012년 곡물¹⁰⁾ 파종 면적은 곡물용 농지의 59.9%를 사용하였으며, 사료용은 7.8%만 사용하였다. 이를 볼 때, 아무르주의 곡물과 콩 생산량의 잠재력은 매우 높다. 아무르주에 대한 우리기업의 농업 진출은 아무르주 농업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에게 해외진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다.

표 12 농산물 생산 잠재력

구 분	합 계	단위: 천 ha, %	
		곡물	사료용지
파종 가능 농경지	2,733.7	1,554.5	900.4
2012년 파종 면적	1,001.3 (36.6)	931.0 (59.9)	70.3 (7.8)

주 ()는 파종가능 농경지 대비 2012년 파종면적.
자료: 아무르주 주통계청

3.2. 곡물자주률을 높이기 위한 해외식량공급기지

2000년대 들어와 급속한 산업화로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잦은 기상 이변과 곡물 수확량 감소로 지구촌은 심각한 식량난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쌀을 제외한 곡물의 대외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곡물 부족국가로 해외식량기지 확보를 통해 자주적인

10) 콩, 감자, 채소류 포함.

곡물수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2010년은 세계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곡물 수확이 급감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요 곡물 생산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금지조치에 따른 수급불안정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등 우리에게 식량자원안보에 위협을 주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세계 곡물생산 불안정에 따른 수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곡물자급률¹¹⁾을 2010년 26.7%에서 2015년 30%, 2020년 32%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곡물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기반공사와 수출입은행을 통해 저리의 해외농업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정부는 곡물자주율을 2015년 55%, 2020년에는 65%로 증대시켜 세계적인 곡물과동에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수급하려한다.¹²⁾

우리나라의 곡물자주율을 확대시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진 지역이 러시아 극동 지역이다. 특히, 아무르주는 콩, 밀 등의 곡물자주율을 확대하기 위한 적합한 지역이다. 아무르주는 러시아 콩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연방정부의 극동지역 농업개발을 위한 투자도 계획되어 있어, 농업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표 13 식량자급률 현황 및 목표치

단위: %

구 분	현 재 ¹⁾	2015년 목표치	2020년 목표치
곡물자급률 ²⁾	26.7	25.0→30.0	32.0
식량자급률 ³⁾	54.9	57.0(산설)	60.0
곡물자주율 ⁴⁾	27.0	55.0(산설)	65.0
주식자급률	64.6	54.0→70.0	72.0
칼로리지급률	50.1	47.0→52.0	55.0
쌀	104.6	90.0→98.0	98.0
밀	1.7	1.0→10.0	15.0
콩	31.7	42.0→36.3	40.0
사료	37.5	41.2(산설)	44.4

주: 1) 주식자급률(2008년), 칼로리 자급률(2009년)을 제외하고는 2010년 말 기준.

2)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전체.

3) 식용곡물만 대상.

4) 해외농업을 통해 생산한 곡물을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1) 곡물자급률이란 그 나라에서 소비되는 곡물을 자국에서 얼마나 생산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전년도 전체 곡물생산량을 금년도 곡물 총 수요량으로 나누어 백분비로 산출한 비율. 곡물 총수요는 '식량용+가공용(식용, 양조용, 기타)+사료용+종자용+감모 및 기타' 로 구성되어 있음.

12) 강명구, 2011. "러시아 연해주 농업협력과 한국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슬라브연구」 27권 4호, p.13.

3.3. 안전한 국민 식생활 도모

전 세계적으로 GMO 농산물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중국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먹거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Non-GMO 농산물 생산지인 러시아 아무르주의 농산물을 우리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면 식생활의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¹³⁾

또한, 사료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아무르주의 신선한 사료는 국내 소 사육 농가에게는 매우 희망적이며, 이를 소비하는 국민들도 안심한 사료로 키운 축산물은 먹거리 안전에 희망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구, 2011. “러시아 연해주 농업협력과 한국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슬라브연구」 27권 4호.
- 강명구, 윤재희. 2006. 『중앙아시아 및 극동러시아의 경제』, 선학사.
- 남혜경, 강명구 외, 2006. 『고려인 기업 및 자영업 실태』, 북코리아.
- 서울대 농업개발연구소, 2001. 『북방국가에 대한 해외농업 진출방안 연구』, 농촌진흥청.
- 성원용, 2009.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전략과 한·중·일의 극동진출정책 비교 연구”. 「비교경제연구」 16권 2호.
- 정여천, 김민철 외. 2008.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과 한국의 선택: 극동지역 농업 진출 협황과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allot, J. and Nefedova, T. 2007. “Russia Unknown Agriculture: Household Production in Post-Socialist Rural Russia.”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참고사이트

-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www.gks.ru)
-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Amur Oblasti) (amurstat.gks.ru)

13) 강명구, 2011. “러시아 연해주 농업협력과 한국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슬라브연구」 27권 4호 pp. 13~14.